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세계경제) 엔저 심화로 세계금융공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투자) 7월중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1월~7월까지의 누계는 전년 동기의 3/4 수준에 불과
- (2/4분기 교역조건)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커 순교역조건은 전년동기대비 2.8% 악화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세를 시현
- (자금시장) 회사채 금리가 12%대로 재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

□ 세계경제

- (세계공황 가능성) 엔화가치 하락 지속에 따른 세계금융공황 우려
 - 11일 엔/달러 환율이 8년만의 최저치인 147.64엔까지 하락
 - 엔저 심화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의 증시가 동반폭락하여 세계금융공황이 우려되는 상황
 - 만약 엔화가치 절하가 지속되고 홍콩이 환투기 세력의 공격에 못이겨 달러화 연동을 포기할 경우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가시화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제2의 아시아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그 파장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러시아, 동유럽 및 남미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확산될 것임
- (세계공황 가능성은 높지 않음) 엔저가 무한정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본다면, 엔화가치의 절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를 넘어서서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세계경제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막기위해 공동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 증가세) 7월중 투자는 약 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
 - 그러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약 37억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보다 24.1% 줄어들었음
 - 금년 들어서는 M&A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미국이나 EU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음. 또 작년에 비해 제조업 투자 비중이 높아졌음

□ 2/4분기 교역조건

- (교역조건 악화)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
 - 2/4분기중 수출단가는 원화 환율 상승, 동남아 일본 등 주력 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주요 품목의 세계시장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하락, 특히 반도체 수출단가가 공급과잉으로 전년동기대비 55.1%나 하락
 - 2/4분기중 수입단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 하락과 엔화 약세,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5%하락하여 순상품교역조건(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악화됨
 - 그러나 소득 교역조건(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은 24.1%의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6% 개선됨

□ 외환시장

- (환율 안정세)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세 지속
 - 당분간은 1,300원대에서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공급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이므로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곧 다시 1,300원대로 반등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외환시장 간접개입 여파로 1,200원대가 하한선이라는 인식이 형성, 환율 급락시 투기적 매수세가 늘거나 외채상환을 위한 기업의 실수요가 커져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이기 때문임. 또 엔저 심화 경향과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 불안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한편 당분간은 1,400원대로의 급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엔저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외부적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세계경제가 공멸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지나친 엔저 심화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정치적 제어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우위 상황에 놓여있고 매도 시기를 놓친 기업 보유 외환이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이들 달러가 유입되어 급등세를 저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외평채의 가격 하락)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외평채 가격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
- 엔화 약세와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의 불안 여파로 10년만기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발행일(4월 8일) 당시의 3.55%에서 지난 11일 5.65%까지 상승함
 - 외평채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산업은행채권등 기타 해외 한국물의 가격도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자금시장

- (지표 금리 다소 상승) 회사채 수익률 12%대로 재상승
- 정부의 한자리수 금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투신권에 몰려 있는 풍부한 유동성(5개은행 퇴출을 계기로 금전신탁이 예금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그 중 상당 정도가 투신사에 몰림. 8월 11일 현재 투신사의 총수탁액은 143조원으로 지난 7월1일의 116조원에 비해 크게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 한때 11%로 하락하였던 회사채 수익률은 12%대로 재상승함
 - 이는 하반기중 국공채 발행 증대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성, 신탁·투신의 동일 계열 CP 보유한도제 시행으로 향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5대그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 물량은 여전히 많지만(8월 1~14일 중 발행 계획 물량은 약 3조 원으로 97년 8월 한달 동안의 약 2.4조 원에 비해 크게 증가), 역마진을 우려한 투신사들이 매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임
 - 투신사들이 매입을 자제했던 또다른 이유는, 한때 금감위가 보증보험 보증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임
 - 콜금리와 CP, CD 금리 역시 다소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콜금리는 9%대, 증장

기 시장금리인 CP와 CD 금리는 11%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 소폭 상승

엔화 약세와 양쯔강 홍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고조,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냄. 그러나 엔화 반등과 함께 러시아 사태의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상승세는 소폭에 그침. 8월 19일 현재 1,325.1원 기록

- 주가 : 300포인트선 붕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대내적으로 상장사의 올 상반기 대규모 적자와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한남투신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의 위축에 따라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300포인트선이 붕괴됨. 국내외 금융시장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 심리의 위축 현상은 지속될 전망. 8월 18일 현재 291.15포인트 기록

- 금리 : 13%대로 상승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증보험 보증채의 무보증채 전략과 한남투신 영업정지의 여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신권의 보유 물량 매물화 등으로 그동안 금리 하락세를 주도하던 투신권의 채권 매수 여력이 약화됨. 이에 따라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약 한달만에 13%대로 재진입함. 당분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겠으나, 당국의 신축적 통화공급이 예상되어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을 전망. 8월 18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3.20% 기록

- 엔/달러 환율 :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으로 강세반전

홍콩에 대한 환투기 공격,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러시아 모라토리엄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엔화는 약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시사 발언으로 다시 강세로 반전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최적의 개입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 그러나 개입에 대한 예상이 시장가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월 18일 현재 144.87엔 기록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